

# 서울지역 학교교육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일제고사, 학교선택제 이후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

2010. 6. 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I. 실태 조사 개요

## 1. 실태 조사의 취지

- 공정택 전(前)교육감 재직기간 동안 지속된 소위 ‘학력신장’ 정책으로 학교현장은 주지교과 중심의 성적 향상 경쟁이 전면화 되었고, 여기에 덧붙여진 이명박 정부의 경쟁·서열화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학교교육은 파행으로 얼룩져왔음.
- 그 중심에 학생간, 학교간 경쟁을 전면화한 일제고사가 놓여있으며, 숏한 우려와 지적에도 강행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이른바 학교선택제 역시 학사 파행을 강제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학사 파행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심리적, 육체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공문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학사 파행을 야기하는 행정을 펼쳐왔음.
-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고사와 학교선택제라는 경쟁과 서열화 기제 작동 이후 학교 현장이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함. 또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어 온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파행 행정의 실태 역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서울교육,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2. 실태 조사 방법과 참여 현황

### 1) 실태 조사 방법

- 조사 대상 :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교(급별, 설립자별로 전체학교의 약 20% 수준의 학교수 조사)
- 조사 기간 : 2010. 5월(약 한달 간 진행)
- 조사 방법 : 전교조 서울지부 주관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설문 조사 병행

### 2) 참여현황

- 총 256개교 :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76개교, 고등학교 74개교(공립고 38개교, 사립고 36개교)

# II.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1. 주요 현황과 문제점

입시위주 교육 등 학사 파행 증가

- 일제고사, 학교선택제 실시 이후 초·중·고 급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시위주 교육이 강화되고 이를 위한 각종 파행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 정규수업 외 보충수업, 야간학습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H중, Y중, D중 등),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실시되는 사례 발생(D초, S초)
  - 또한 주말 또는 놀토 등 휴업일에도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고등학교 약 36%, 중학교 약 37%, 초등학교도 약 8% 실시)
  -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정규교육활동에서 부족한 다양한 교육활동 마련이라는 애초 시행 취지에 맞춰 진행되던 방과후활동이, 교과보충수업으로 전면 교체되고 있는 실정임. (중학교의 약 54%, 초등학교의 약 17% 정도)
-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선택제 실시 이후 우려했던 것처럼, 0교시,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 입시위주 교육이 강화되고(약 54% 응답) 다른 학교와 비교, 경쟁을 요구하는 일이 늘면서(약 65% 응답) 학교교육이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오전 8시를 전후하여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학교도 상당수(약 27%)에 달하며, 8시 이전에 0교시가 실시되는 경우(약 16%)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학교는 7시 시간대에 등교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됨.
  - 심지어 7시까지 등교하여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Y고)
- 특히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주말 또는 놀토 등 휴업일에도 자율학습을 실시하거나(약 28%), 전학년 야간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실시(약 19%)하는 등 학사 파행의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최근 일련의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활동을 강제하는 것을 학교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교별 성적 공개 등 학교간 학생간 경쟁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입시 위주 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고등학교 약 91%)
  - 자사고나 국제중고, 학교선택제 등으로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활동 강제(초등 약 70%, 중학교 약 74% 응답)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초등 약 71%, 중학교 약 63% 응답) 판단함

### 정상적인 교육 활동 침해

- 일제고사 이후 학교현장은 성적 향상 압박이 심화되면서, 문제풀이식 수업 강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초등의 약 72%, 중학교의 약 42%가 일제고사 이후 성적 향상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응답
  - 특히 초등의 경우 문제풀이식 수업을 강제하거나(약 28% 응답) 성적 위주의 교육활동을 강제하는(약 27%) 경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교도 이러한 경향이 약 1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일제고사 성적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보충수업 전면화가 정상

적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러한 보충수업은 학력향상에 사실상 실효성도 없으면서(초등 별반 효과 없다 약 40%, 중학교 약 63% 응답) 오히려 교사들의 정규수업이나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됨(초등 약 73%, 중학교 약 64% 응답)

## 학생 인권 상황 악화

- o 일련의 입시경쟁, 서열화가 강요되면서 학교명예나 선택을 등을 빌미로 학칙의 엄격한 적용이 강화되고 강제전학이나 용의복장 단속이 심화되는 등 학생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칙의 엄격한 적용(중학교 약 26%, 고등학교 약 28%) 또는 엄격한 적용을 강조(중학교 약 38%, 고등학교 약 51%)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실제 학교선택제 실시 이후 고등학교에서 강제전학 등이 늘었다는 응답도 14%에 달하고 있음.
- o 한편 정규교육 활동이 아님에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 역시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기본권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이 사실상 강제로 실시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약 35%), 특히 사립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됨(약 58%)
  - 특히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경우도 새삼스럽게 등장하고 있음(Y고, S고 등)
  -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경우, 일제고사 성적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수업이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심한 경우는 방과후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S중, K중, S중, Y중 등)
- o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에게 가해지는 차별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성적’을 꼽고 있어(초등 약 76%, 중학교 약 70%, 고등학교 약 82%)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의 변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음.

## 낙제점수 받은 서울 교육

- o 위와 같은 학교교육의 왜곡, 학사 파행 속에서 학교현장에서는 현행과 같은 서울교육을 50점 미만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였음(초등 약 73%, 중학교 약 82%, 고등 약 77% 응답)
- o 일부 교육청의 경우 자율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 사이버자율학력평가 실시를 강요하면서 행정 파행을 자행, 학교교육을 더욱 왜곡하고 입시위주 교육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o 절대다수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는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입시위주 교육, 경쟁 만능 교육, 서열화 교육’으로 꼽고 있었으며,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도 자기 적성을 살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교사든 학생이든 숨 좀 쉬며 살 수 있는 교육을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첨부] 학교교육의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자유응답 내용 정리 참조)

##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 1) 초등학교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일제고사 실시 이후 성적 향상에 절대가수 학교에서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약 95%, 압박 심한편 약 72%, 압박이 심하지는 않으나 신경 쓰는 편에 약 24%) 일제고사 이전 이후에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는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중학교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성적 압박이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나마 자유로웠던 초등교육이 일제고사 이후 성적 위주, 입시 경쟁의 영향을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4. 일제고사 실시 이후 학교 현장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적 향상을 위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76개교 / 71.7%)
- ② 성적 향상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압박이 심한 편은 아니다. (25개교 / 23.58%)
- ③ 일제고사 실시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다. (3개교 / 2.83%)
- ④ 기타 (1개교 / 0.94%)



○ 일제고사 이후 부진아 지도 강화(약 76%)와

성적 위주 교육활동 강제(약 27%), 시험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강요(약 28%)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약 72% 응답)

#### 5. 일제고사 이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파행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

- ① 방학 중 보충 수업 실시(11개교 / 10.38%)
- ② 시험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강제(30개교 / 28.3%)
- ③ 교과 보충수업 전면화(12개교 / 11.32%)
- ④ 부진아 지도 강화(81개교 / 76.42%)
- ⑤ 성적 위주 교육활동 강제(29개교 / 27.36%)
- ⑥ 아침이나 야간 자율학습 강제(4개교 / 3.77%)
- ⑦ 기타 (4개교 / 3.77%)

#### 7.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진아 지도나 교과 보충수업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방과후 활동이 교과 보충수업의 형태로 바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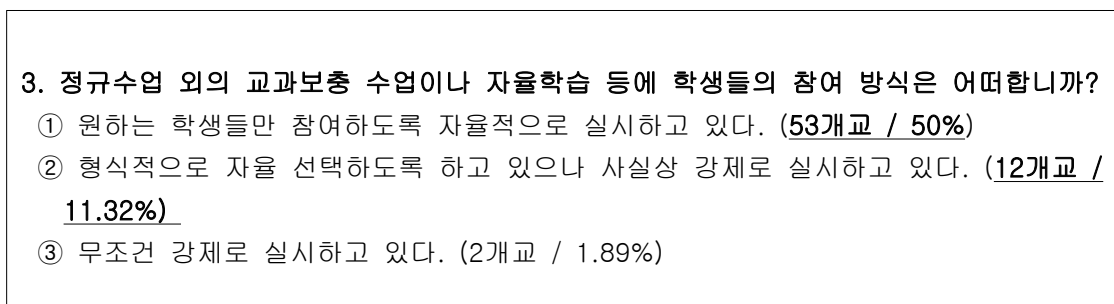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선택권 제약을 이유로 금지해 온 2~3개 교과를

묶어 진행하는 사례(S초, Y초)와 심지어 야간자율학습도 실시하는 사례(D초)까지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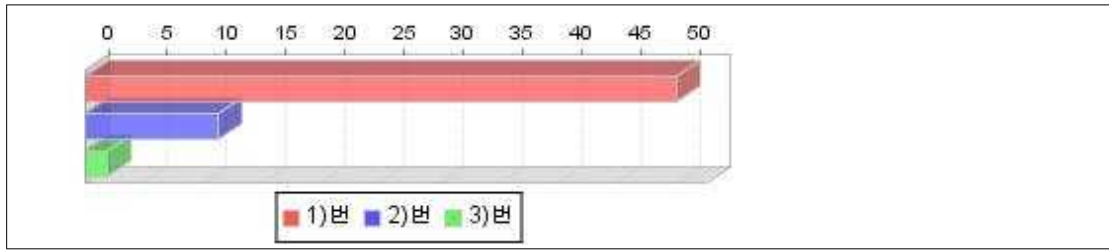


○ 대부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다수 학교가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는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도 존재(약 12% 응답)하여, 초등학교에서조차 최소한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 또한 정부의 일련의 학교서



경쟁 위주 교육의 강화(약 70% 응답), 사교육 의존도에 대한 우려(약 71%)가 크게 나타났으며, 현 교육정책을 낙제점 이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약 73%)

8. 최근 정부나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외고, 학교선택제 등 학교 서열화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교사와 학교의 긴장감을 높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0명 / 0%)
- ② 지나치게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74명 / 69.81%)
- ③ 학교 교육 외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75명 / 70.75%)
- ④ 학교 교육에는 별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3명 / 2.83%)
- ⑤ 잘 모르겠다. (0명 / 0%)



9. 현재의 서울시의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① 90~100점 (0명 / 0%)      ② 80점~90점 (0명 / 0%)
- ③ 70점~80점 (2명 / 1.89%)      ④ 60점~70점 (12명 / 11.32%)
- ⑤ 50점~60점 (12명 / 11.32%)      ⑥ 50점 미만 (77명 / 72.64%)



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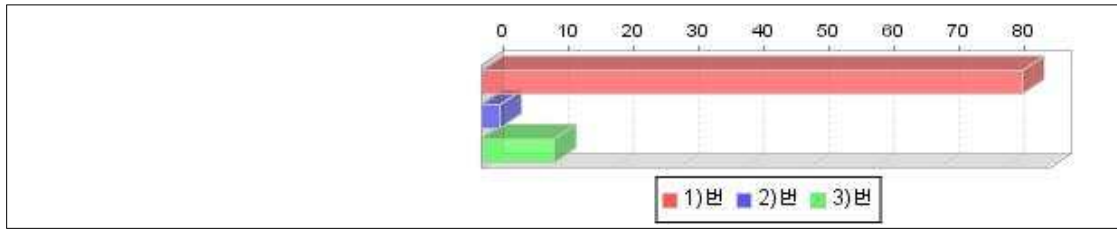
10.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문제나 체벌 문제를 포함하여 학생 인권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광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추진된다면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88명 / 83.02%)
- ② 반대한다. (3명 / 2.83%)
- ③ 잘 모르겠다. (12명 / 11.32%)

열 화  
정책으  
로 인  
한 입  
시와  
  
0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에 대  
하여  
서는  
약  
83%  
가 찬  
성하  
는 것  
으로  
조사  
되어  
학생  
인권  
개선  
에 대  
한 교  
사들

2) 중  
학교  
실태

## 조사 결과 분석



○ 중학교역

시 절대다수 학교에서 성적 향상에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약 87%, 압박 심한편 약 42%, 압박이 심하지는 않으나 신경 쓰는 편 약 45%), 일제고사 이전 이후에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는 약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일제고사로 인한 학교교육 왜곡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음.

### 4. 일제고사 실시 이후 학교 현장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적 향상을 위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32개교 / 42.11%)
- ② 성적 향상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압박이 심한 편은 아니다. (34개교 / 44.74%)
- ③ 일제고사 실시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다. (8개교 / 10.53%)
- ④ 기타 (2개교 / 2.63%)

○ 중학교역시 일제고사 이후 부진아 지도



강화(약 68%)와 교과보충수업 전면화(약 22%), 성적위주 교육 활동 강제(약 20%)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약 64% 응답)

### 5. 일제고사 이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파행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

- ① 방학 중 보충 수업 실시(7개교 / 9.21%)
- ② 시험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강제(8개교 / 10.53%)
- ③ 교과 보충수업 전면화(17개교 / 22.37%)
- ④ 부진아 지도 강화(52개교 / 68.42%)
- ⑤ 성적 위주 교육활동 강제(15개교 / 19.74%)
- ⑥ 아침이나 야간 자율학습 강제(3개교 / 3.95%)
- ⑦ 기타 (8개교 / 1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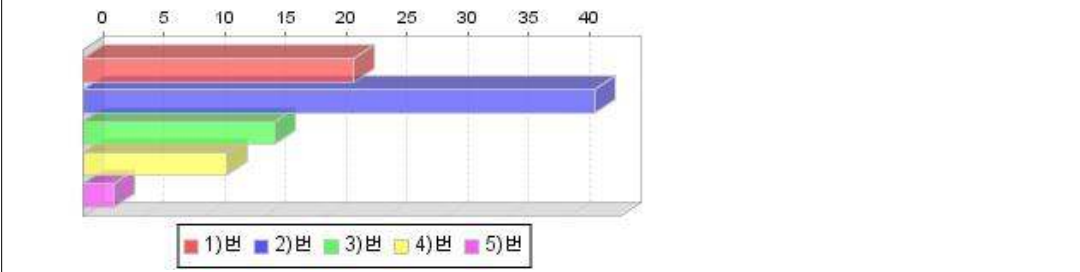
○ 특히 방과후 활동이 교과보충수업의 형태로 바뀌고 있고, 1교시 수업을 오전 8시 30분 전





7.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진아 지도나 교과 보충수업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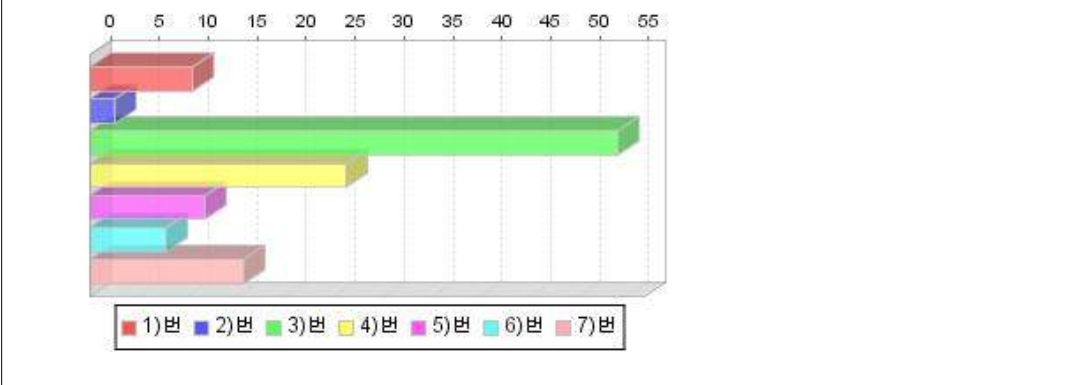
- 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7개교 / 22.37%)
- ②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편이다. (32개교 / 42.11%)
- ③ 그저 그렇다. (12개교 / 15.79%)
- ④ 별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편이다. (9개교 / 11.84%)
- ⑤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 (2개교 / 2.63%)



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야간자율학습은 대부분 사립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어 사립학교의 학사과행이 더욱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

2. 다음 중 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아침 자율학습을 영어듣기 등 30분 이상 진행 (8개교 / 10.53%)
- ② 1교시 정규수업을 8시 30분 전후로 실시 (2개교 / 2.63%)
- ③ 방과후 활동을 교과 보충수업으로 실시 (41개교 / 53.95%)
- ④ 교과 보충수업을 2~3개 과목을 묶어서 진행 (20개교 / 26.32%)
- ⑤ 야간자율학습 실시 (9개교 / 11.84%)
- ⑥ 주말 또는 놀토에도 교과 보충수업을 실시 (6개교 / 7.89%)
- ⑦ 기타 (12개교 / 15.79%)



후에 시작하는 학교(D여중, D중)는 물론 야간 자율학습(H중, Y중, D중 등)을 진행하는 학교까지 등장하는 등 학교 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확산되고 있

0 대부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아직 다수 학교가 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참여를 강제하는 경우도 초등학교보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약 15%응답) 역시 학생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부진아학생의 경우는 별도로 강제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3. 정규수업 외의 교과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에 학생들의 참여 방식은 어떠합니까?**

- ①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도록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5개교 / 72.37%)
- ② 형식적으로 자율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11개교 / 14.47%)
- ③ 무조건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1개교 / 1.32%)



○ 또한 정부의 일련의 학교서열화 정책으로 인한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의 강화(약 74% 응답), 사교육 의존도에 대한 우려(약 63%)가 크게 나타났으며, 현 교육정책을 낙제점 이하로 보는 것이 절대다수였음(약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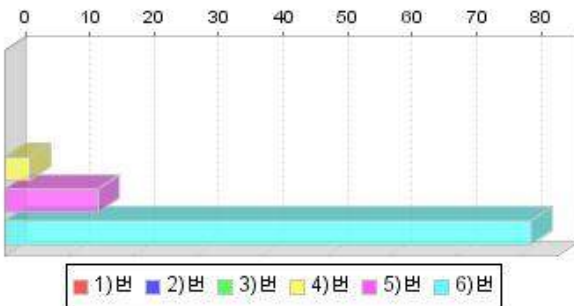
8. 최근 정부나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외고, 학교선택제 등 학교 서열화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교사와 학교의 긴장감을 높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0명 / 0%)
- ② 지나치게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74명 / 69.81%)
- ③ 학교 교육 외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75명 / 70.75%)
- ④ 학교 교육에는 별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3명 / 2.83%)
- ⑤ 잘 모르겠다. (0명 / 0%)



9. 현재의 서울시의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① 90~100점 (0명 / 0%)      ② 80점~90점 (0명 / 0%)
- ③ 70점~80점 (2명 / 1.89%)    ④ 60점~70점 (12명 / 11.32%)
- ⑤ 50점~60점 (12명 / 11.32%)   ⑥ 50점 미만 (77명 / 72.64%)



○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하여서는 약 8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 인권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10.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문제나 체벌 문제를 포함하여 학생 인권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광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추진된다면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88명 / 83.02%)
- ② 반대한다. (3명 / 2.83%)
- ③ 잘 모르겠다. (12명 / 11.32%)



3) 고  
등  
학  
교  
실  
태  
조  
사

결과 분석

-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그동안도 입시위주의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었음. 그러나 예상한 것과 같이 학교 선택제가 실시되고 나서 입시 위주 교육활동 강화 등 학사 파행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입시 교육 강화 약 54% 응답, 다른 학교와의 경쟁 요구 약 65% 응답 등)

**6. 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학교 선택제가 실시되었습니다. 학교 선택제 이후 학교에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선택)**

- ① 학교 시설이 좋아졌다. (12개교 / 16.22%)
- ②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이 다양해졌다. (2개교 / 2.7%)
- ③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늘었다. (6개교 / 8.11%)
- ④ 0교시,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 입시교육이 강화되었다. (40개교 / 54.05%)
- ⑤ 학교 규칙이 강화되었고 강제전학 등이 늘었다. (10개교 / 13.51%)
- ⑥ 다른 학교와 비교, 경쟁을 요구하는 일이 늘었다. (48개교 / 64.86%)
- ⑦ 기타 (7개교 / 9.46%)

항목	개교 수	비율 (%)
1)번	12	16.22%
2)번	2	2.7%
3)번	6	8.11%
4)번	40	54.05%
5)번	10	13.51%
6)번	48	64.86%
7)번	7	9.46%

○ 이러한 변화 속에 절대 다수(약 85%)가 학교 선택제가 실제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단지 학교간 경쟁만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음. (매우 동의 약 72%, 동의하는 편 약 24%)

**7. 학교 선택제가 실제로는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단지 학교간 경쟁과 서열화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53명 / 71.62%)
- ② 동의하는 편이다. (18명 / 24.32%)
- ③ 그저 그렇다. (2명 / 2.7%)
- ④ 동의하지 않는다. (0명 / 0%)
- ⑤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0명 / 0%)

항목	명수	비율 (%)
1)번	53	71.62%
2)번	18	24.32%
3)번	2	2.7%
4)번	0	0%
5)번	0	0%

○ 여기에 덧붙여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별 성적 공개 등 학교간, 학생 간 경쟁 강화 정책이 입시위주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약 91%, 매우 큰 영향 68%, 큰 영향 23% 응답)

**8. 최근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별로 성적을 공**

개하여 학교 간, 학생 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입시 위주 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명 / 67.57%)
- ②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명 / 22.97%)
- ③ 그저 그렇다. (5명 / 6.76%)
- ④ 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1명 / 1.35%)
- ⑤ 영향은 거의 없다. (0명 / 0%)



○ 또한 학교 선택제 이후 강제 전학이나 용의복장 단속 강화 등

학교 교칙의 적용을 강화하면서 학생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강제전학·용의복장 단속 강화 약 28% 응답)

9. 최근 학교 명예나 선택을 증가를 위하여 학교 규칙을 보다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귀 학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 ①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며 강제 전학, 용의 복장 단속 강화 등이 일어나고 있다. (21개교 / 23.38%)
- ②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38개교 / 51.35%)
- ③ 그러한 주장이 드러나거나 강조되고 있지 않다. (9개교 / 12.16%)
- ④ 기타 (5개교 / 6.76%)



○ 특히 공립고등학교에 비하여 사립고등학교의 학

사 파행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비선택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삭감, 학급수 감축 등 학교선택제가 (사립학교) 구조조정을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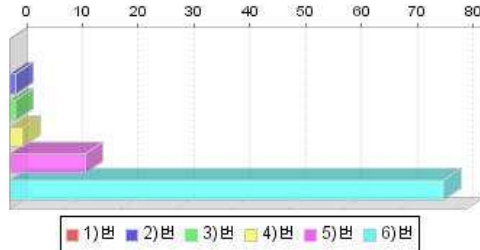
- 상당수의 응답 사립학교들은 1교시가 8시 전후로 시작하고(약 39%, 공립은 약 21%)
- 특히 야간자율학습을 전학년 강제하는 비율도 약 19%에 달하는데, 이는 공립의 약 5.2%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비율임
-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있어서도 사립의 약 50%가 사실상 강제로 실시하고 있어 공립의 약 16%라는 응답과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역시 현 교육정책을 낙제점 이하로 보는 것이 절대다수였으며(약 77%),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하여서는 약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 인권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12. 9. 현재의 서울시의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① 90~100점 (0명 / 0%)      ② 80점~90점 (0명 / 0%)
- ③ 70점~80점 (2명 / 1.89%)    ④ 60점~70점 (12명 / 11.32%)



- ⑤ 50점~60점 (12명 / 11.32%)    ⑥ 50점 미만 (77명 / 72.64%)

10.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문제나 체벌 문제를 포함하여 학생 인권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광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추진된다면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61명 / 82.43%)
- ② 반대한다. (3명 / 4.05%)
- ③ 잘 모르겠다. (8 / 10.81%)



3.  
행정  
파행  
실태  
(별첨)

### Ⅲ. 개선 방향 및 요구 사항

- 본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일제고사와 학교선택제가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을 입시위주 교육, 성적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사 파행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이러한 입시 위주 교육, 학교 서열화 정책 등은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할 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7시대 등교나 심야나 휴업일조차 사실상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이 강제되는 현 상황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것임.
- 특히 초등학교까지 야간자율학습이 등장하고 성적 경쟁이 전면화되는 현 상황은 분명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
-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현재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제고사의 즉각 폐지(표집 실시로 전환)’와 ‘학교 선택제 폐지’가 필수적임
- 또한 일제고사와 학교 선택제 폐지 이전이라도, 심각한 학사 파행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0교시,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 휴업일 등교 등 반인권적 학사 파행 즉각 시정
  - 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서울 전 지역 학교 전수 실태조사 및 시정 조치 이행
  - 학교교육 파행 운영을 조장, 압박한 교육청 담당자 문책 및 재발 방지 약속
- 또한 학생 인권 침해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시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 등)

## IV. 첨부 (별첨)

### [첨부 1] 대표적인 파행 사례 현황

#### [초등]

학교	내용
D초	6학년의 경우 월/화/목/금 오후 5시까지 보충수업 실시
S초	교과보충 수업을 2~3개 과목으로 묶어(셋트화) 실시
S초	주말 또는 놀토 등 휴업일에도 교과보충수업 실시
S초	방학중 교과 보충수업 준비 중
S초	아침자율학습 때 영어듣기 30분 이상
Y초	교과보충 수업을 2~3개 과목으로 묶어(셋트화) 실시
D초	학력 신장반 운영
D초	주말 또는 놀토 등 휴업일에도 교과보충수업 실시

#### [중등]

학교	아침자율학습 영어듣기 등 30분 이상	교과보충 2-3개과목 묶어 실시	야간자율학 습 실시	휴업일에 교 과보충수업 실시	기타
D중	●	●			
H중	●	●	●		
S중		●		●	
S중		●			1, 2학년 미도달자 방 과후 자습
B중		●		●	
Y중	●				
S중	공부방 2개반	야간자율학습			
Y중		●			
K중	공부방 2개반	야간자율학습			
Y중		●			
Y중		●			
K중	●			●	
G중		●			교과향상반 7-9교시 강제시행(하위30%)
D중		●			
H중				●	
J중	학습부진아 방과후 담임이 지도				
H중	●	●			
Y중	●	●	●		
Y중	●				야간자율학습 공부방형 태로 진행
D중		●	●		

[고등]

[첨부

2] 실태조

사

설문

분석

결과

자료

2-1.

초등학

교

(별첨)

### 2-2. 중학교 (별첨)



학교	0 교 시 또는 -1교시	아침자습 영어30 분 이상	1교시 8시전후	보 총 2~3 개 과목유기	전학년 야자 강제	휴 업 일 보충수업 실시	휴업일 자율학습 실시	기타
J고					●			
K고	●						●	
S고	●						●	
K고	●						●	
G고							●	
S고		●						
H고			●	●			●	
Y고			●	●		●		
K고			●					
S고				●				
K고	●							
Y고	1학년 강제 야자 실시							
D고			●					
S고	학년별 심화반 일부 실시							
H고			●		●		●	
P고			●					
S고			●					1학년 강제 야자
C고	●		●					
B고				●				
Y고		●	●	●	●			
N고			●	●				
G고	●		●				●	0교시, 휴업일 자율학습 3학년 만 실시
S고			●					
D고	●			●	●		●	영어듣기 20분 휴업일(희망자) 심화반 운영
Y고	●		●		●		●	7시등교 자율학 습, 주말, 놀토 3 학년
J고	●	●						야자 성적고려 전학년(희망자)
H고	●	●	●	●	●		●	
H고				●	●			
D고							●	
S고					●			
D고							●	

2-3. 고등학교 (별첨)  
2-4. 공립고등학교  
1. 참여교수 : (38)

2. 설문 문항별 응답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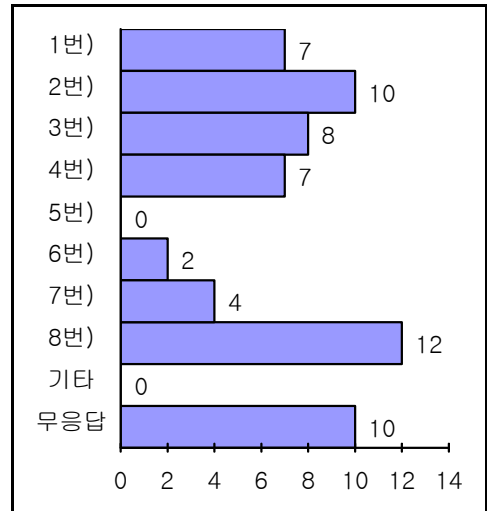
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무응답	기타
2	7	10	8	7	0	2	4	12		10	
3	30	6	2								
4	11	16	8	1						1	1
5	2	18	13	2	1					2	
6	2	2	1	17	6	24				3	6
7	28	9	1								
8	24	8	4	1						1	
9	9	18	5	1						1	4
10	33	3	6	7	22	13				3	5
11	31	3	3							1	
12		1	1	2	4	29				1	

[문항별 분포]

2. 다음 중 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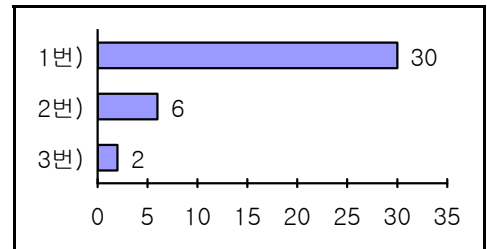
- ① 0교시, 또는 -1교시  
(오전 8시 이전 등교 및 보충수업 시작)(7)18.4%
- ② 아침 자율학습을 영어듣기 등 30분 이상 진행(10)38.0%
- ③ 1교시 정규수업을 8시 전후로 실시(8)21.0%
- ④ 보충수업을 2~3개 과목을 묶어서 진행(7)18.4%
- ⑤ 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3학년 중심)(0)
- ⑥ 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전학년)(2)5.2%
- ⑦ 주말 또는 놀토에도 교과 보충수업을 실시(4)40.5%
- ⑧ 주말 또는 놀토에도 자율학습 실시(12)31.5%

\* 무응답 : (10)26.3%



3. 정규 수업 외의 교과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에 학생들의 참여 방식은 어떠합니까?

- ①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도록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30)78.9%
- ② 형식적으로 자율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6)15.7%
- ③ 무조건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2)5.2%



4. 일제고사는 어느덧 실시 3년째이며, 올 해 7월에 실시되는 일제고사부터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됩니다. 일제고사 실시 이후 학교 현장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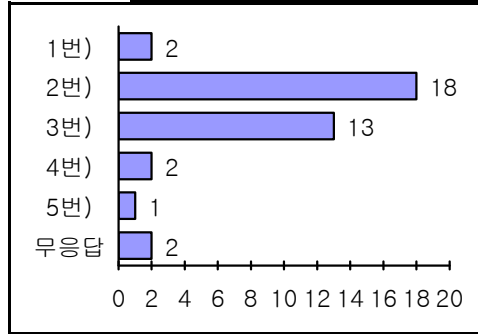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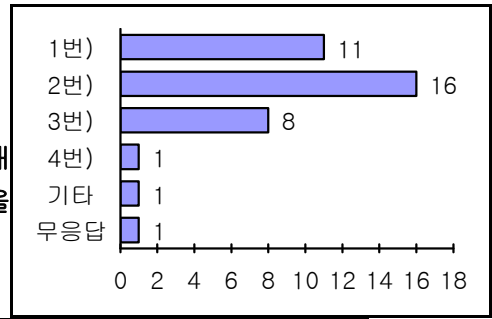
- ① 성적 향상을 위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11)28.9%
- ② 성적 향상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압박이 심한 편은 아니다.(16)42.1%
- ③ 일제고사 실시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다. (8)21.05%

④ 기타 ( ) (1)2.6%

\*무응답 (1)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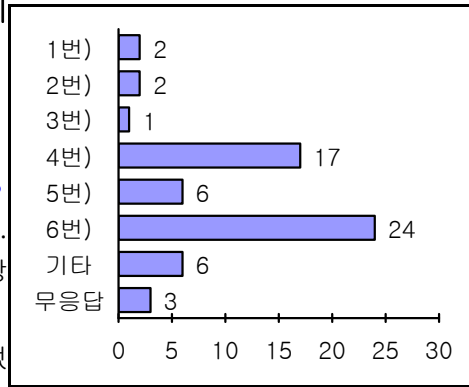
5.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진아 지도나 교과 보충수업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5.2%
  - ②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편이다. (18)47.3%
  - ③ 그저 그렇다. (13)34.2%
  - ④ 별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편이다. (2)5.2%
  - ⑤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 (1)2.6%
- \*무응답 (2)5.2%



6. (인문계 고등학교만 대답) 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학교 선택제가 실시되었습니다. 학교 선택제 이후 학교에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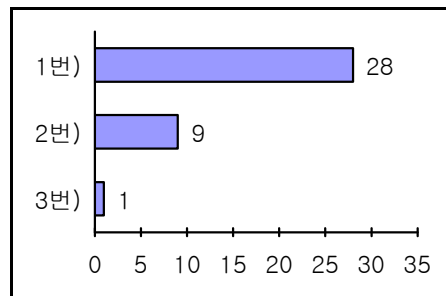
- ① 학교 시설이 좋아졌다. (2)5.2%
  - ②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이 다양해졌다. (2)5.2%
  - ③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늘었다. (1)2.6%
  - ④ 0교시,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 입시교육이 강화되었다. (17)44.7%
  - ⑤ 학교 규칙이 강화되었고 강제전학 등이 늘었다. (6)15.7%
  - ⑥ 다른 학교와 비교, 경쟁을 요구하는 일이 늘었다. (24)63.1%
  - ⑦ 기타 ( ) (6) 15.7%
- \* 무응답 : (3)7.8%



(1)2.6%  
화 되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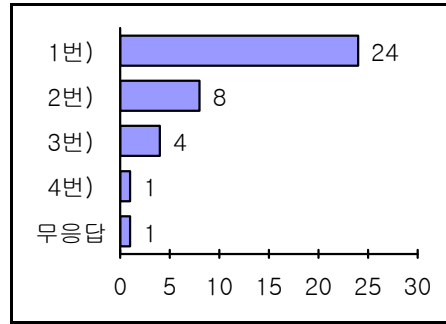
7. (인문계 고등학교만 대답) 학교 선택제가 실제로는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단지 학교간 경쟁과 서열화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28) 73.6%
- ② 동의하는 편이다. (9) 23.6%
- ③ 그저 그렇다. (1)2.6%
- ④ 동의하지 않는다. (0)
- ⑤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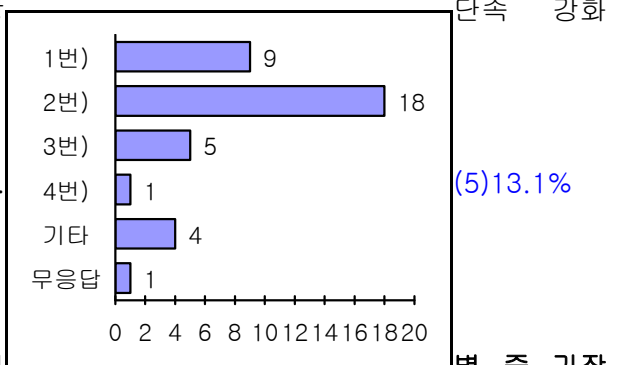
8. 최근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여 학교 간, 학생 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입시 위주 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 63.1%
- ②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8) 21.05%
- ③ 그저 그렇다. (4) 10.5%
- ④ 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1) 2.6%
- ⑤ 영향은 거의 없다. (0)
- \*무응답 (1)2.6%



9. 최근 학교 명예나 선택을 증가를 위하여 학교 규칙을 보다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귀 학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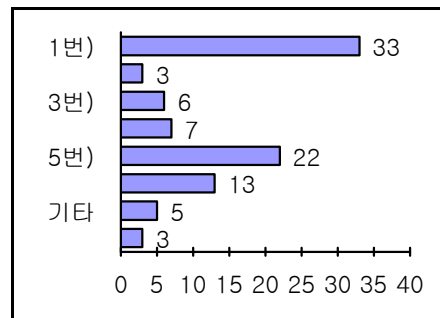
- ①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며 강제 전학, 용의 복장 등이 일어나고 있다. (9) 23.6%
- ②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18) 47.3%
- ③ 그러한 주장이 드러나거나 강조되고 있지 않다. (5) 13.1%
- ④ 기타( ) (4) 10.5%



\* 무응답 : (1) 2.6%

10. 학교 안에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차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 골라주십시오. (3순위까지 필수 입력)

- ① 성적 (33) 86.8%
- ② 성별 (3) 7.8%
- ③ 장애 (6) 15.7%
- ④ 나이나 학년 (7) 18.4%
- ⑤ 경제력 및 집안 환경 (22) 57.8%
- ⑥ 외모나 신체적 특징 (13) 34.2%
- ⑦ 성정체성 혹은 성적지향(ex. 동성애 등) (0)
- ⑧ 인종이나 국적 (0)
- ⑨ 기타 (5)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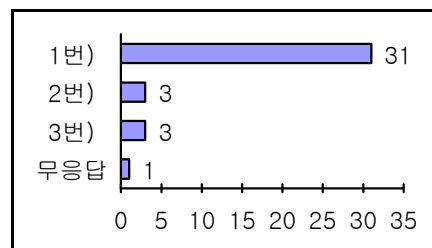


\* 무응답 : (3) 7.8%

11.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두발 문제나 체벌 문제를 포함한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광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추진된다면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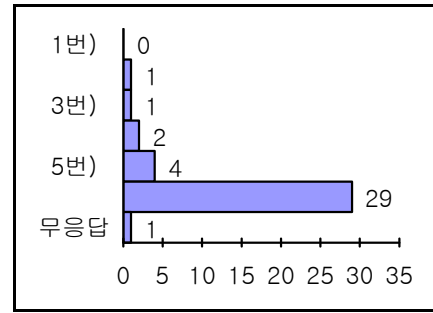
- ① 찬성한다. (31) 81.5%
- ② 반대한다. (3) 7.8%
- ③ 잘 모르겠다. (3) 7.8%

\* 무응답 : (1) 2.6%



12. 현재의 서울시의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① 90~100점
  - ② 80점~90점 (1) 2.6%
  - ③ 70점~80점 (1) 2.6%
  - ④ 60점~70점 (2) 5.2%
  - ⑤ 50점~60점 (4) 10.5%
  - ⑥ 50점 미만 (29) 76.3%
- \* 무응답 : (1) 2.6%



## 2-5. 사립고등학교

1. 참여 학교수 : (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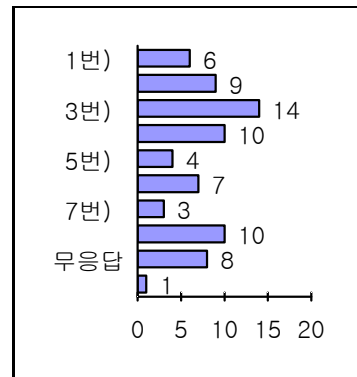
2. 설문 문항별 응답 통계

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무응답	기타
2	6	9	14	10	4	7	3	10		8	1
3	14	18	3							1	
4	17	7	8							3	1
5	2	23	7	3						1	
6	9		4	23	4	24				1	3
7	27	7	1							1	
8	26	10									
9	11	20	5								
10	32	4	6	7	17	7	2				6
11	30	1	5								
12					5	29				2	

### [문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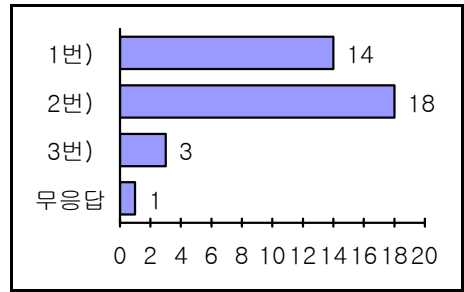
2. 다음 중 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0교시, 또는 1교시 (오전 8시 이전 등교 및 보충수업 시작) (6)26.6%
  - ② 아침 자율학습을 영어듣기 등 30분 이상 진행(9)25.0%
  - ③ 1교시 정규수업을 8시 전후로 실시(14)38.8%
  - ④ 보충수업을 2~3개 과목을 묶어서 진행(10)27.7%
  - ⑤ 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3학년 중심)(4)11.1%
  - ⑥ 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전학년)(7)19.4%
  - ⑦ 주말 또는 놀토에도 교과 보충수업을 실시(3)8.3%
  - ⑧ 주말 또는 놀토에도 자율학습 실시(10)27.7%
- \* 무응답 : (8)22.2% \* 기타 :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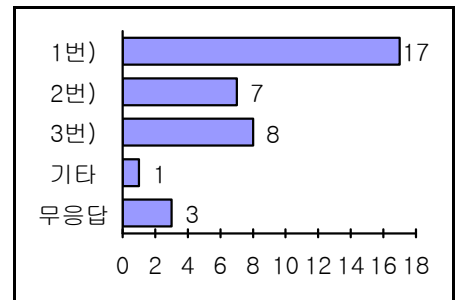
3. 정규 수업 외의 교과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에 학생들의 참여 방식은 어떠합니까?

- ①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도록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14)38.8%
- ② 형식적으로 자율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18)50.0%
- ③ 무조건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3)8.3%
- \* 무응답 :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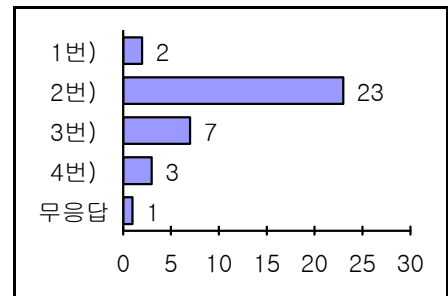
4. 일제고사는 어느덧 실시 3년째이며, 올 해 7월에 실시되는 일제고사부터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됩니다. 일제고사 실시 이후 학교 현장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적 향상을 위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17)47.2%
- ② 성적 향상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압박이 심한 편은 아니다.(7)19.4%
- ③ 일제고사 실시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다. (8)22.2%
- ④ 기타 ( ) (1)2.7%
- \* 무응답 : (3)8.3%



5.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진아 지도나 교과 보충수업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2)5.5%
- ②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편이다.(23)63.8%
- ③ 그저 그렇다.(7)19.4%
- ④ 별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편이다.(3)8.3%
- ⑤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 (0)
- \*무응답 :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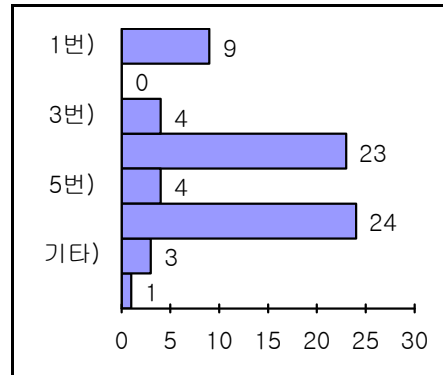


6. (인문계 고등학교만 대답) 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학교 선택제가 실시되었습니다. 학교 선택제 이후 학교에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선택)

- ① 학교 시설이 좋아졌다. (9)25.0%
- ②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이 다양해졌다. (0)
- ③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늘었다. (4)11.1%
- ④ 0교시,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 입시교육이 강화되었다. (23)63.8%
- ⑤ 학교 규칙이 강화되었고 강제전학 등이 늘었다. (4)11.1%
- ⑥ 다른 학교와 비교, 경쟁을 요구하는 일이 늘었다.(24)66.6%
- ⑦ 기타 ( ) (3)8.3%
- \* 무응답 : (3) 8.3%

7. (인문계 고등학교만 대답) 학교 선택제가 실제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단지 학교간 경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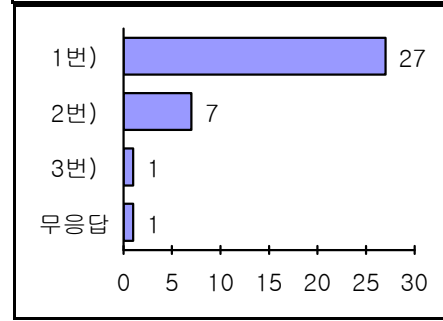
- ① 매우 동의한다. (27)75.0%
- ② 동의하는 편이다. (7)19.4%
- ③ 그저 그렇다. (1)2.7%
- ④ 동의하지 않는다. (0)
- ⑤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0)
- \* 무응답 :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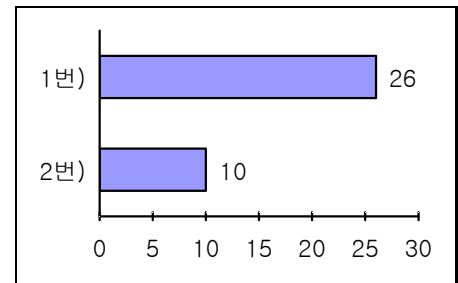
는 학부모나  
쟁과 서열화  
한 주장에

8. 최근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경쟁력을 강하며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여 학교 간, 학생 간의 경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입시 위주 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6)72.2%
- ②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27.7%
- ③ 그저 그렇다. (0)
- ④ 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0)
- ⑤ 영향은 거의 없다.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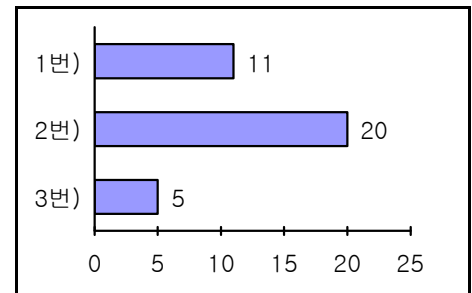


화해야 한다  
쟁을 강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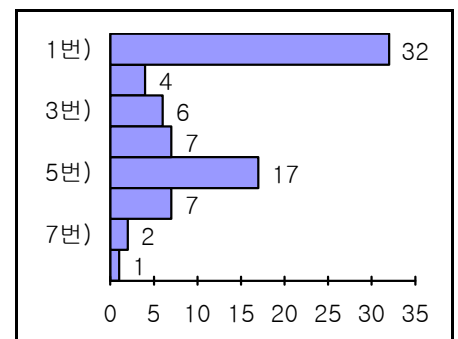
9. 최근 학교 명예나 선택을 증가를 위하여 학교 규칙을 보다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귀 학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 ①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며 강제 전학, 용의 복장 단속 강화 등이 일어나고 있다. (11)30.5%
- ②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20)55.5%
- ③ 그러한 주장이 드러나거나 강조되고 있지 않다. (5)13.8%



10. 학교 안에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차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 골라주십시오. (3순위까지 필수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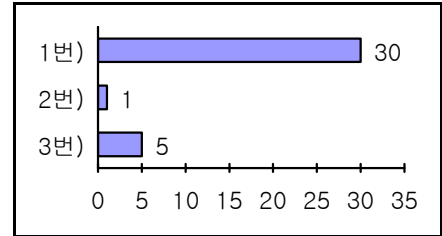
- ① 성적 (32)88.8%
- ② 성별 (4)11.1%
- ③ 장애 (6)16.6%
- ④ 나이나 학년 (7)19.4%
- ⑤ 경제력 및 집안 환경 (17)47.2%
- ⑥ 외모나 신체적 특징 (7)19.4%
- ⑦ 성정체성 혹은 성적지향(ex. 동성애 등)(2)5.5%
- ⑧ 인종이나 국적 (0)
- ⑨ 기타 (6)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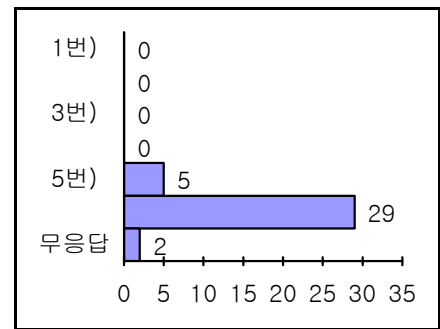
11.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두발 문제나 체벌 문제를 포함한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광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추진된다면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30)83.3%
- ② 반대한다. (1) 2.7%
- ③ 잘 모르겠다.(5)13.8%
- \* 무응답 : (1)2.7%



12. 현재의 서울시의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① 90~100점(0)    ② 80점~90점(0)
- ③ 70점~80점(0)    ④ 60점~70점 (1)2.7%
- ⑤ 50점~60점(5)13.8%    ⑥ 50점 미만(29)80.5%
- \*무응답 : (2)5.5%



### [첨부 3] 학교교육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자유응답 내용 정리

- 일제고사 이후 자유로운 교육활동보다는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 지식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 학생들에게 부담이 심하다. 2007 교육과정도 양이 줄기는 커녕 특히 수학의 경우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아 버거워하고 있다
-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현상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나라가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찌 학교만 믿고 따르겠는가?
- 일제고사로 인해 획일화 교육이 강화되어 공부는 못해도 다른 가능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다.
-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간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의 권익도 신장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인한 파행적인 수업 진행
- 성적지상주의가 심각하다.
- 부진아 지도 및 방과후 학교의 교사 동원, 학력 증진을 위한 일제고사 철회
- 사교육비와 성적의 정비례 현상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로 인해 교육청에서 학교에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6학년 교사 및 평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사이버자율학력평가 연수와 부진아지도 연수 진행, 학무국장이 일선 학교를 돌아다니며 6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2시간씩 연수, 사이버자율학력평가 참여율이 저조한 학교에 참여 독촉 전화하기 등) 그로 인해 교감선생님도 6학년 교사들에게 여러가지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성적으로 교사나 학교, 교육청의 성적을 매기려는 일제고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직 경쟁과 학력상승만을 외치느라 진정한 배움의 기쁨이나 인성교육이 등한시 되는 것
-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들을 시범이라는 이유로 들여놓고 계속 강제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철저히 검토된 뒤에 추진되어야 한다
- 성적위주의 교육,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성적으로만 아이들을 판단하는 정책
- 학생수를 더 줄이고 교육시설을 늘려서 아이들이 고운 마음을 지니게 밝고 키웠으면 합니다. 지나친 학업위주의 경쟁은 결국 누구를 밝히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마인드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강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공부는 중간이고 운동과 글쓰기, 악기 다루기 이런 활동에 관심갖고 열심히 하는 무엇보다 학교에서만이라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 일제고사 실시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교장 권한강화로 인한 독선적인 학사운영, 각종 시범학교, 교원평가, 학교평가, 보고공문 등으로 인한 수업외 업무 증가, 입시강화제도(특목고, 자율고, 국제중 등)로 인한 성적지상주의 및 경쟁만능교육, 노조활동 탄압 등. 일제고사 폐지, 교사의 교육과정 재량권 확대, 잡무 감축, 법정수업시수 감축(학습량 줄이기), 교원평가 폐지, 성과급 폐지, 교육예산 확대, 무상급식,무상교육(학습준비물비 등) 등등
- 학생의 성적만으로(지필고사에 의한 매우 협소한 의미의 점수) 학생을 규정하고 교육의 성패를 판단하는 어리석음
- 공교육 본연의 본질추구에서 벗어나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태도, 학생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경쟁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 등
- 학년에서 부진아 지도를 하려고 해도 꼭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담임교사가 부진아 지도를 하려고 해도 방과 후수업때문에 마땅한 교실이 없고, 방과후로 빠지는 아동들 때문에 남겨서 보충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쓸데없이 이것저것 일을 벌리지 말고 교사가 아동들을 충분히 지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교사의 직접적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정책 예를들어 연구시범학교, 학부모공개 4회실시, 정보공시제도 등의 학부모서비스, 교원평가 등
-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막아줄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지나치다. 교권이라는 말이 추락되거나 말거나 나라 정책이나 정치에 의하여 좌우되는 모습이 안타깝다.
- 무엇보다 성적위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다른 어떤 것을 잘 해도 자신감이 없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잘하는 것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일제고사 형식의 모든 시험을 없애야 한다. 반별 평가로 충분

하다.

- 경쟁교육, 교사 노동권 침해 (잡무부과), 학교행정의 불합리함
-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일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학습과 생활 지도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지도하기 어렵다. 학생 수준에 적합한 지도가 이루진다면 학습에서 학생이 소외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배움이 학생에게 자기 성장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교사가 수업준비에 할애할 시간 확보를 위해 업무를 줄여야 한다. 쏟아지는 공문 처리에 행정실에서 해야 할 업무까지 떠맡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현재의 업무과다 상황에서 수업의 질, 생활지도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경쟁위주의 일제고사를 통한 학생, 교사, 학교 평가
- 일제식 시험. 시험결과로 서열화. 점수로 학생 평가
- 학생의 숨통을 트여주는 교육. 배우는 시간보다 스스로 익히는 시간을 여유있게 주는 교육. 지식보다는 삶의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교육
-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보다는 남과 경쟁하여 이기거나 이기지 못하면 따를 시키는 인성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점. 학력중심만 외칠 뿐이지 인성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교육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는 함께 가는 것임에 불구하고,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완전 따로 노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조만간 학력은 높아질 지라도 아이들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 버리는, 제대로 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다. 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교과지도, 인성을 생각하는 교과지도가 되어야 한다. [학력]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 필요하다. 입시위주의 정책 속에서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는 못하겠으나 현재의 학력은 [인 서울대] 입시에서 살아남은 것이 학력이다. [학력]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사들이 추구할 수 있어야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교사들 스스로가 입시에서 실패하지 않았던 자들이고, 그들의 자녀도 입시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자신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 [입시]에서 해방된, [상위 2%]에서 해방된, 그런 [학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제고사로 인한 학교내의 교육과정이 시험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인적 교육은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음. 저학년(1,2학년)도 부진아 예방을 한다고 나머지 공부가 생기고 있음
- 성적지향, 학생간, 교사간 경쟁 심화
- 교장의 무한대적인 권한과 교장의 쏠쏠함
- 능률위주의 경제정책의 잣대를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효율성을 위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학력신장이라는 이유로 지필고사만을 전국단위로 일제히 시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무자비한 평가이다. 경쟁과 줄세우기식 일제고사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 교사의 자율성 무시 및 교권 상실, 수요자 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 수업보다 행사나 업무처리가 주가 되고 그것으로 성과급도 주어지고 있어 학습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교사는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음
- 교사를 대화의 주체가 아닌 지시에 순응해야 하는 객체로 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교사들과 학생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고 있는 정도 큰 문제이다.
-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시설 확충
- 학력위주의 경쟁 교육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초등학생부터 학원 교육에 시달리지 않도록 특수한 중, 고등학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학력향상이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의 여러 여건과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줄세우기가 되어가며 학습 이외에 아동들이 참여해야 할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여러 행사들.
- 학교 교육청이나 관리자들의 학교경영 마인드가 엘리트 위주의 입시경쟁, 일제고사, 귀족교육 선호 취향으로 공교육에서 꼭 필요한 평등 교육이나 약자를 위한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점
-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공교육 내실화, 초등에서 예체능 교과전담 모두 배치하여 주당 수업시수감축효과와 교육의 질 향상시키기, 잡무처리 인력 보강하여 교사의 잡무경감 시키기, 승진제도의 개선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 부진아 지도 등 교사가 마땅히 담당하여야 할 몫이지만, 지나치게 학력 향상에 대한 압박이나 비교 등의 형태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 성적 제일주의 교육으로 학생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과도한 경쟁과 입시로 인한 청소년 문제 대두-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함께 ..,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있는
- 학교장의 권한을 견제할 협의체가 없음. 학운위도 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 위주로 채워져 있고 학운위 교사는 평가권을 쥐고 있는 교장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 /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주지교과)는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님. 재직중의 교사가 방과후에 투입되는 중,고의 현실은 본수업이 부실해질 염려. 방과후는 지역사회가 나서야.... 모든 것을 학교가 떠맡고 가려니 담당교사는 정작 자신의 학급은 뒷전임 / 사무 자동화로 교사의 잡무가 늘고 있음. 교무실의 사무직원이 하던 일까지 잡다하게 각 담임이 직접 해야하는 일이 되고 행정실에서 하던 서류까지도 담임의 업무로 바뀜 / 공개 수업 4번으로 교사를 평가한다? 공개가 만사라면 일년내내 하는 것은 어떨까? 차라리 학부모도 학기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자원인사로 수업보조교사로 쓴다면 굳이 따로 공개안해도 되고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돕는 협력자로 설 수 있지 않을까..
- 교사들의 업무 과중, 하향식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 성적위주의 학교 운영, 교장 내부형 공모제, 학급인원수 25명 이내,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위주의 교과수업 운영 더불어 담임 교사의 수업 시수 20시간 안팎 확보
- 눈에 보이는 성적 위주의 정책
- 특정계층만을 위한 국제중, 자사고, 자율고 등 신설하여 사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없앤다고되지도 않는 사교육없는 시범학교를 만들어 국고만 축내고 있음. 국제중, 자사고, 자율고, 일제고사 폐지하고 핀란드형 공교육 실현
- 경쟁위주의 줄세우기, 교원평가로 인한 교사와 학생의 믿음과 존경심 추락
-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 수월성중심의 교육과 미래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인성교과의 파행이 우려가됨.  
무리한 줄세우기보다는 다양성과 공존이 어우러지는 학교교육정책이 필요
- 지나친 경쟁 위주 교육 방식이 가장 큰 문제점, 시험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 경쟁교육, 학력신장 정책때문에 이미 교육현장은 황폐화되었다. 특히 국영수사과 중심의 교과개정 개편으로 절름발이 장애 교육이 되어 버렸다. 또한 국영수사과 서술형평가 강제 실시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이미 양극화되어버렸다.
-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으로 인해 인성교육과 체험교육은 쇠퇴하고 교과성적만 강조되고 있다.
- 성적이나 시험이 아니면 교육활동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 학생 개개인에 대한 보살핌이나 돌봄을 할 수 없는 현실(잡무 증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내면화된 현실 등등..
-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방과 후 학교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아 정상화시키기(학원수업을 학교에서 한다고 사교육을 공교육이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 다인수 학급, 주요(?)과목 위주의 학업 풍토, 공교육을 빙자한 사교육인 방과후학교 => 증가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수업의 내실화를 돕는다. 음미체 등 정서 교육을 강화하고 국영수사과에 집중되는 시간을 줄인다. 방과후에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한다.
- 관리자들과 교사들간의 소통 부재, 부장교사들과 평교사간 생각차가 큼
- 성적 위주, 상급 학교 진학 위주의 교육과 열악한 교육환경, 그리고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교육행정 업무
-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국가의 교육독점권이 문제. 학교 자율권 확대와 입시 위주 교육을 벗어난 탈학교의 상상력을 학교 안으로 적극 끌어들이어야 한다.
- 저희 학교는 일단 모든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을 강조하지는 않고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에게만 거의 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은 모든 초점이 국영수사과 과목에 맞춰져서 기초학력이하 학생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데 학교 활동의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은 그 존재의미조차 학교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전락하여 학생의 존엄성이 구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된 일명 학교 줄세우기라는 서울의 교육방침이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을 인간다운 인간 양

성이 아닌 국영수사과 과목에 전념하는 인간 양성이라는 비교육적 방향으로 굳어져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인정해주고, 즐겁고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현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경쟁지상의 교육풍토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물론, 뒷보다 입시경쟁교육이 문제겠죠...거기에 두발, 체벌, 교권경시 넓게는 계급 재생사 등등 교사와 학생안에 수시로 비인권적인 문제들이 파생시킵니다. 앞으로 전교조가 해야할 목표는 입시경쟁구조를 깨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짜고 실천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접어두고 생각해 보면 교사들의 교육관도 잡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쳐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가르쳐야 할 것이 전반적으로 지식위주의 입시이고, 좀 더 나가면 예절 교육 정도인데 이 과정에서 인간이 없습니다. 입시 폐지전이라도 학교안에서 교사-학생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이고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만 있어도 학교안에서 넘어야할 수많은 인권의 벽을 함께 넘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는 쓸데없는 일(각종 공문 통계 보고, 학교 정보공시)과 정책(내년 부터 무슨 교과목을 8개로 줄이라는 등, 성과급, 일제고사, 강제 방과후 수업, 공부방, 야간자율학습)이 너무 많고,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놓아 두기만 해도 좋겠다.
- 자신들의 꿈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진로, 봉사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학습력으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함. 다양함 속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적이라는 잣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일제고사와 함께 나타나는 여파. 학습 결과(성적) 중심의 상황들.
- 일제고사의 여파로 학력 향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음. 방과후학교가 교과 중심으로 점점 비대화되고 있고, 중학교 단계임에도 아침 시간과 저녁시간에도 방과후가 진행되고 있음. 정규수업보다 방과후가 더 강조되는 주객이 전도된 양상. 이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에 있어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 독주하는 현상도 점점 강화되고 있음. 학생들의 수업 이외의 여가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학력 경쟁에만 내몰리는 상황임.
- 성적무한경쟁으로 황폐화되는 아이들의 인성, 교사의 지나친 행정업무부담으로 수업의 질 저하 초래,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은 것 등등
- 교육과정편성이 학교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나 정부정책을 강제로 관철 시킬려는 것 때문에 현장 교사간의 갈등이 심함. 교사들이 행복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는 정책을 펴수있는 관리자들이 있었으면 한다.
- 지나친 경쟁, 학생들의 인권 침해
- 학교의 문제라기 보다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
-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일부 교과목 위주의 수업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제 전인교육이니, 인성교육이니 하는 말은 구세대의 유물처럼 취급되고, 오로지 성적과 진학률만이 학교와 교육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서울교육은 소외받는 아이들 없이, 모든 아이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제도와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 정말로 학교에 진정한 자율을 주고 보고하라는 공문을 딱 줄이면 좋겠다. 교육적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되는 교육활동은 없고 보고사항에 맞춰 질질 끌려다니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줄세우기식 성적 위주의 경쟁 교육, 적성과 소질을 탐구하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
-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한다
- 성적은 사람의 많은 재능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 시행하는 다른 학력 향상 노력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쟁의 강화가 문제입니다.
- 교권 보호(권력으로부터의 강압적 정책 강요 극복), 학생의 인권 보호
- 경쟁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인성교육과 공동체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한다.
- 공교육답게 일정한 교육수준을 다같이 이룰 수 있도록 자율선택, 상호존중, 배움과 나눔이 풍성해지

는 사람사는 학교

- 경쟁위주 교육, 있는자를 위한 교육이 문제임. 경쟁보다 인성을 중시하고 부족한 학생을 도와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함
- 경쟁, 서열화 교육 대신 다양한 진로적성교육, 평등보편교육, 인권교육이 필요
- 입시위주의 교육, 과잉 경쟁
- 무한 경쟁, 입시 성적위주의 교육. 실질적 교육내용보다는 강제 보충, 야자로 학생들의 스트레스 과중
- 대학이 선발권을 가지면서 고등학교 교육을 좌지우지 하는 것.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 무차별적인 성적 공개와 이로 인한 학력위주의 경쟁심화, 명문고를 위한 교칙 강화 등으로 학생들이 더 힘들어 하는 것, 전문계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 압박과 학생들 진로 지도의 어려움
- 학생인권무시, 입시위주교육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함.
-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막고자 하니 부작용이 크다. 그 이유는 실행에 있어서 교사의 수업 부담이 커지고 각종 행사가 누적하여 일어나니 탁상 활동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 입시위주의 교육 없어야 하고 성적 지상주의 보다 개인의 특기 특성 흥미 교육을 통해 자연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
- 입시 위주의 교수 학습을 강요하는 현 사회에서는 살인적인 경쟁이 필연적이며, 경쟁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타인과 공존하는 공동체 대신 자기위주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무관심과 예의 없음, 내가 앞선 순위에 놓이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한 유, 무형의 반발 행태 만이 그들의 유일한 존재 방식이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 입시만능 성적지상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본질적인 자기개발과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있는것... 오로지 성적이 모든 것의 잣대가 되고 있다
- 입시 위주의 교육
- 경쟁 중심의 교육강화, 2009개정교육과정의 성급한 시행, 교장선출방식의 문제 등
- 학교 간 학생 간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교 선택제 등으로 다른 학교와 경쟁을 유도해 학생과 교사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다. 학교 교육은 학교 현장에 맡기는 풍토가 조성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
-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가 없다. 전교조도 그러한 면에서는 약하며 현실에서 너무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마음을 열고 모여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찾고,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이 더욱 치열해 져야 한다.
- 경쟁 심화, 함께 살아가는 방법 모색
- 학교 자율화 조치 환원, 교사 인사원칙 환원 : 초빙교사 확대, 원거리 내신 폐지 등
- 복장:교복에서 사복으로 쉬는 시간:10분에서 15분~20분으로 특별실;다양한 특별실 완비
- 경쟁 교육이 가장 큰 문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너무 낮아 저 하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학생들에게 체화되어있는 상태임. 또한 성적이 낮고 집안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전망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도피하고 있는 상태임. 자율형 사립고 등 평준화를 해체하는 정책들은 재고되어야 함
-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보다는 전시행정이 많이 늘어 교사의 잡무가 늘었음. 학력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점점 강화되어 교육적인지, 올바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
- 학생과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학부모, 사회, 정부가 주고 있음. 지나치게 논쟁 거리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교와 사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봄.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봄.
- 제한된 재정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졸속 정책(교과교실제, 자율형공립고, 수준별 수업 시범학교, 과학중점학교 등)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 학교마다 학교 홍보 LED전광판을 달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라도 규제 법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 입시위주의 무한 학력경쟁
- 입시교육이 초중등교육을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까지 몰아가고 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입시를 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조합원들이 인식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결국 해답(대학에서의 경쟁력 강화)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우리사회의 통념에 함몰되어 초중등 교육만 뛰어짜 시달리는 꼴이 지금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문과 조사도 결국 욕망의 현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곤 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작금에 현실이다.

-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더 크게 의존하는 규격화된 학업능력에 따라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선발권에 얽매이며 진행되는 공교육의 이러한 흐름은 학생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짓밟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말살하는 것이다.
- 학교 선택제를 통한 경쟁 위주의 교육
- 핀란드식의 창의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
- 학교교육을 차분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너무 심하게 변화하는 정책들을 따라잡기 힘들.
-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민주교육,진로교육,인성교육 등) 내실화.
- 인성교육은 말뿐이고 모든 것이 입시에 귀결되고 있다/ 학교선택제 이후 이기적인 학부모들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음.
-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시를 위한 국영수 교육이다. 미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도 국영수 탐구 교과 위주이다보니, 나머지 교과는 엄청난 과원이 발생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으로 안다..인성교육은 멀리하고, 입시교육이라니 미래가 한심하다...
- 입시위주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과정이 이에 종속되어 있다. 특히 최근 중점학교나 자율학교제를 도입하면서 그리고 2009 교육과정에서 국영수사과 이외의 과목은 설망을 잃고 있다. 고교교육은 다양하고 기초적인 교양을 배움으로써 바람직한 자신의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기도 전에 진로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공계는 사회분야를 배우지 않고, 인문계열은 과학을 배우지 않음으로써 , 그리고 예체능 등 정서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절름발이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이들 교육만큼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미래가 암울하다.
- 입시 위주의 교육, 엄청나게 늘어나는 교사 잠무, 교사, 학생의 자율성 위축
- 인간관계의 상실, 특히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동체 생활에서의 도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 인문계고교는 인문계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업고에서도 떨어진 학생들이 입학하는데, 이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몰입, 인성교육 실종
-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특별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 교장중심의 의사결정구조와 일부학부모중심의 학교참여, 학교교육주체간의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학교 교육방향 및 목표설정, 다양한 교육활동의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
- 학생의 주입식교육-자기주도학습, 입시 위주의 학교의 학원처럼 운영-공교육으로 운영

#### [첨부 4] 실태조사 설문지 양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